



지난해 폐점포 리모델링 '갤러리 107' 오픈
2월 7일까지 강례오 셰프·공예가 오정훈 2인전
'스트리트 갤러리' '감성충전 골목길' 도 눈길
15차례 전시회, 크라운 해태와 조각 체험전도

곡성 읍내, 참을 수 없는 '예술의 유쾌함'

인구 3만명의 시골 마을, 곡성 읍내에 예술의 꽃이 활짝 피었다.

몇 주 전, 시골의 작은 갤러리까지 찾아간 건 전시장에 나온 공예 작품과 세련된 전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아서였다. 물론 작가 이름도 눈길을 끌었다. 스타 셰프 강례오. 곡성 홍보대사로 곡성에 머물며 멜론 농사를 짓고 있는 그는 농부이자, 요리사이자, 공예가다.

강 씨와 옷칠공예가·사진작가인 오정훈 초대 기획전 '사와호·옷칠과 식문화 예술' (2월7일까지)이 열리고 있는 '갤러리 107' (곡성읍 중앙로 107-1)은 곡성읍 읍내에 지난해 5월 문을 열었다.

섬세한 예술가들의 손으로 꾸며진 전시공간은 흥미로웠다. 전시에 나온 작품들은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옷칠로 작업한 다양한 식기로 직접 제작한 대체로운 색깔의 나무 테이블에 전시돼 볼거리를 더한다. 무엇보다 전시에 나온 식기들의 색깔이 오묘하다. 또 꽃 한송이, 나뭇가지 하나, 낙엽 한장이 멋진 소품으로 변신한 모습을 보는 것도 즐겁다.

'사와호'는 서양을 대표하는 사자와 동양을 대표하는 호랑이를 합친 두 사람의 프로젝트명으로 현대와 전통사이에서 방황하는 한국의 식문화와 공예 미술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2019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참여했다.

'갤러리 107'은 오랫동안 폐점포로 남아있던 공간을 군에서 사들여 꾸민 갤러리다. 지금까지 강동권·박홍수 등 14명의 작가가 참여한 개관 기념전 'Flower Power'전, 정춘표 작가의 '미몽(美夢)'전 등 3차례 기획·초대전이 열렸고 공모를 통해 6차례 전시회가 개최됐다.

갤러리에서 나와 읍내를 천천히 걸다보면 길 위에서 색다른 전시공간을 만난다. 컨테이너 박



스를 활용한 '스트리트 갤러리'다. 농협과 경철사 앞에 세워진, 기차 모양의 전시 공간에는 '갤러리 107'에서 전시 중인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거리를 걸으며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다 갤러리에서 '본격적으로' 작가의 작품을 만나는 식이다. 갤러리로 관람객을 유입하는 멋진 방법이다.

2019년 갤러리 준비 과정에서부터 합류해 갤러리 기획 등을 맡고 있는 위진수 미래혁신과 경관디자인팀 주무관은 한국화를 전공한 전문 작가다. 호남대 미술학과를 거쳐 조선대 대학원 순수미술학과, 동대학원 교육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위 작가는 광주시 문화예술상 허백련상, 전남도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읍내에서는 지난 2019년 조성된 '감성충전골목길'도 만날 수 있다. 곡성군의 장미축제를 상징하는 장미 등이 그려진 문패가 걸린 집들의 담벼락에는 기차마을, 천문대 등 곡성의 볼거리를 소재로 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포토존도 여러개 마련돼 있다.

군이 읍내에 소박한 문화 공간을 마련한 건 주

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와 함께 곡성의 대표 명소인 기차마을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지만, 수많은 관광객들이 좀처럼 읍내로 유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시골 읍내에서 '갤러리'를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읍내 주민들의 단골 장소가 됐고, 관광객들의 발길도 조

금씩 이어지고 있다.

군은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갤러리 107에서는 공모 과정을 거쳐 올해 모두 15차례 전시회가 열린다. 2월에는 곡성미술인 협회 창립전이 열리며 허진 작가를 비롯해 이인호·설수정·조영자·임원자 작가의 개인전과 목향림, 끝망 서각희 등 그룹전이 잡혀있다. 봄·가을, 연말에는 기획 초대전을 열 계획이다.

또 예술을 지역 교육 등과 연계하기 위해 7-8월에는 '갤러리107 SUMMER ART 챌린지'를 개최한다. 2주 동안 예술을 직접 창작하고 전시하는 기획으로 학생들은 예술인으로부터 회화 및 부조를 배우고, 군민 참가자는 지역 작가와 함께 집 문패나 풍경 등을 제작한다. 또 스트리트 갤러리도 곡성읍 인근과 교육지원청 앞에 2등을 추가 설치한다.

그밖에 지난해 크라운 해태와 함께 곡성천 일대에서 펼쳤던 야외 조각 체험전과 한겨울 눈 조각 페스티벌, 옥방마켓도 개최할 예정이다. 갤러리 107 개관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관. /곡성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



'스트리트 갤러리'



동화로 만나는 김대건 신부 목포 출신 김영 작가 발간

한국인 최초 가톨릭 사제로 평등 사상과 박애주의를 실천했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그는 '조선전도' 지도를 제작해 유럽 사회에 조선에 알린 장본인이자 죽은 앞에서도 순교의 삶을 통해 신앙과 신념을 견지했던 인물이다.

우리나라 최초 천주교 사제이자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인 김대건 신부를 다룬 동화가 발간됐다. '푸른문학상' 새로운 시인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저자는 천주교 집안에서 자랐으며 한국가톨릭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포 출신 김영 작가가 펴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도토리숲)는 김 신부의 삶과 신앙을 담고 있다. 어린 시절을 비롯해 마카오에서 보낸 신학생과 유학생 시절, 우리나라 첫 사제가 돼 사목활동을 펼치고 순교하기까지의 삶이 펼쳐진다.

김대건 신부는 1821년 8월 21일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피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집안 어른을 통해 어릴 때부터 천주교 신앙과 박애주의를 배운다. 16세 되던 해(1836년)에는 사제가 되기 위해 마카오로 유학을 떠난다. 마카오에서 신학과 철학 외에도 라틴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 서양 학문과 지식을 배웠으며 새로운 문물과 사상을 기록과 편지로 남긴다. 이처럼 그는 다양한 경험을 한 세계인이자 여행자이며 지식인이다.

그는 1845년 8월 17일 상하이 김가항 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조선으로 돌아온다. 1년 1개월 사목활동을 통해 평등사상과 박애주의를 실천하는 삶을 산다. 그러다 26세에 효수형을 받고, 한강 새남터에서 순교하게 된다.

저자는 "김대건 신부는 양반, 상민, 천민으로 나뉜 계급 사회였던 시대에 맞서 인간을 존중하고 끈기 있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며 "유네스코는 이런 김대건 신부를 기려 2021년 세계 기념 인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 작가는 2014년 한국안테르상 동시부문과 2015년 5·18문학상 동화부문을 수상했으며 시집 '딱북이 미사일', '바다로 간 우산' 등과 '유별난 목공집'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싱어송라이터 사라플라이, 30~31일 시네마틱 콘서트

미디어아트와 국악, 인디음악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싱어송라이터 사라플라이(사진)의 시네마틱 뮤직콘서트 'Our Wishes'가 오는 30~31일 오후 5시 보헤미안 소극장(광주시 동구 문화전당로 43)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은 무대와 관객 사이에 영상이 흐르는 특별한 무대로, 사라플라이의 자작곡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사라플라이는 이날 '홀출', 'Beside the stream', '해남이', 'Go with', 'My wishes'를 비롯해 '아티스트', '바람의 노래', '지구별', '저녁산책' 등을 들려준다.

무대에는 월드뮤직그룹 OLA와 뮤지션 오의성·김용민·이선형 등이 협연자로 오르며, 미디어



으로 2018년부터 매년 국악기를 위한 창작연주곡을 발표하고 있다. 문의 010-5597-221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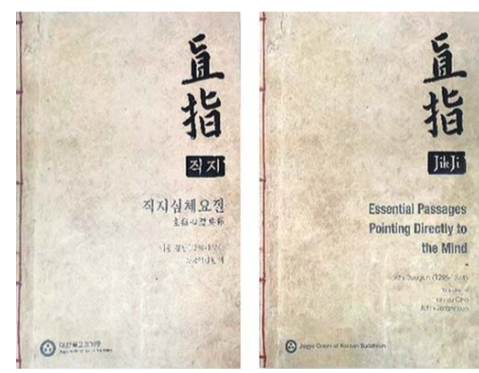
아트 영상작가들과의 콜라보를 통해 다른 세계에 여행을 온듯한 몰입감을 줄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자 30명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다.

한편, 사라플라이는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활동중인 인디뮤지션

세계 최초 금속활자 인쇄 '직지' 한글·영문 번역서 발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최초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의 한글 및 영문번역서가 발간됐다. 대한불교조계종은 27일 '직지' 한글 및 영문번역서 수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지난 2005년 처음 번역서를 펴낸 바 있으며 이후 감수와 재판집을 거쳐 보완작업을 진행했다.

'직지'는 백운 경한스님(1298~1374)이 엮은 책으로 원래 이름은 '백운화상초록 불조직지심체요절'이다. 백운스님이 스승 석옥 선사로부터 전해 받은 '불조직지심체요절'의 내용에 과거 7불(佛), 인도 조사 28조사(祖師), 중국 110선사(禪師)들의 방대한 계·송·찬·가·명·사·법어·문답 등을 수록했다. '직지'는 백운스님이 입적한 후



1377년 청주 흥덕사의 제자들에게 의해 직지의 내용이 간행됨으로써 세계 최초 금속활자의 역사로 남게 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